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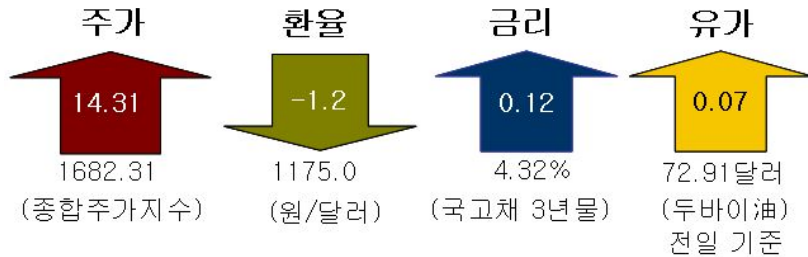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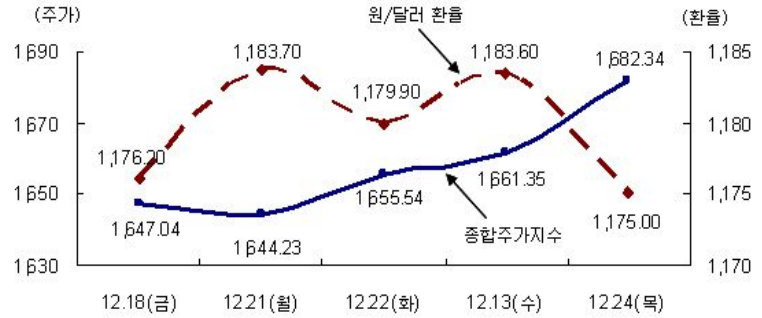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2010 글로벌 10대 트렌드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18~12.24)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0 글로벌 10대 트렌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연구본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이 부 형 연구 위 원 외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0 글로벌 10대 트렌드

(개요)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2010년 새롭게 나타나거나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정치·사회, 경제, 산업·경영 분야의 10대 트렌드를 선정하였다

(정치·사회)

1) Smart Government (효율적 정부로의 복귀)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하는 '효율적인 정부'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 등을 통해 '거대 정부'에서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Nuclear Diplomacy (핵 외교전 가열)

2010년에는 NPT(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방지조약) 8차 회의 등 다자간 협상과 미·소 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후속협정 등 양자 간 협상과 같은 핵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핵 없는 세상은 핵 확산 방지, 불법적 핵 이전 금지, 핵분열 물질의 관리, 민수용 핵 프로그램과 이중용도 기술 감시, 군축과 같은 의제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논의 하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3) New Global Economy (신 세계경제 질서의 확립)

위기 이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은 출구전략을 위한 국제공조, 새로운 성장 전략, 국제통화시스템 불안 현상 등장 등으로 점차 변화될 전망이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 증대로 G20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확대될 것이다. 둘째, 세계 경제는 글로벌 임밸런스 수정을 통한 글로벌 리밸런싱(Rebalancing)을 모색하는 것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모색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 시장 체계는 금융부문 개혁과 건전성 제고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4) BICIs (새로운 신흥강국 대두)

향후 중국은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통해 세계 경제 뿐 아니라 정치외교 면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켜나갈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BRICs 중 러시아를 대신하여 편입되면서 BICIs가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은 2010년에는 GDP 규모 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G20에서의 위상 제고,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한 대미 발언력 강화, 북핵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등을 통해 세계 경제·정치·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다음으로, 브라질과 인도가 3% 중반에서 5% 중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2010~2014년까지 연평균 6% 이상 고성장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성장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5) Africa Rush (아프리카 진출 가속)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을 계기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경제 협력 증진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9개 도시에서 6월 11일~7월 11일까지 한 달간 제19차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세계에서 마지막 미개발지인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2010년 GDP 성장률은 4.1%,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22.7%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FDI와 ODA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 확보 및 경제 협력을 위한 투자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6) 'Madagascar' Conflict (국가간 자원분쟁 확산)

마다가스카르 모델로 대표되는 소규모 국지적 자원 분쟁이 전세계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다가스카르 모델이란 대우로지스틱스가 식량 재배를 위해 마다가스카르 정부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섬의 경작지 절반을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나 식량난을 우려한 반대세력이 폭동을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킨 후 계약을 무효화한 사례를 말한다. 2010년에는 석유, 원자재, 식량에 대한 초과 수요와 자원민족주의가 지속되면서 자원분쟁의 빈도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국가를 중심으로 안정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지적으로는 마다가스카르 모델과 같은 형태의 자원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산업·경영)

7) New Cosmopolitan (신경제 인재의 부상)

경제 위기 이후 고령화, 녹색화, 다극화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경제가 대두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재들이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 경제 질서가 다극체제로 이행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뉴코스모폴리탄(New Cosmopolitan)

적인 인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뉴코스모폴리탄이란 다문화 다민족 시대가 촉진되는 가운데 영어는 물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줄 알며 해외 유학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를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진 인재들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한다. 이외에도 녹색노동자, 노후생활과 관련된 실버시터, 헬스케어 전문가, 정보시스템 관리자 등 새로운 직종에 종사하는 인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 Green Productivity (산업의 녹색 생산성 중시)

모든 산업에서 환경친화적 녹색기술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됨과 동시에 환경 친화성이 생산의 성과를 판별하는 기준에 포함되기 시작하여 전 산업에서 친환경화 노력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에너지 흔적(energy footprint; 생산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연 또는 토지의 양), 탄소 흔적(carbone footprint; 조직, 활동, 생산물 등이 발생시키는 전체 온실가스의 양) 등이 생산성 평가에 반영되는 '녹색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농업, 서비스업, 에너지 산업 등에 있어서도 녹색이 강조되는 등 산업에 녹색이 융합되고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9) Grain War (곡물확보 전쟁 가열)

곡물, 육류 등 식량의 국제가격 상승에 더해 식량 무기화를 포함한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식량자원의 생산, 확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세계 인구는 개도국 지역을 중심으로 7,00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세계 곡물 소비량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생산량은 감소하여 초과 수요 현상이 재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바이오 에너지 수요는 2013년에 2009년 수요 규모의 2배인 24억 갤런, 2016년에는 36억 갤런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또 곡물선물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가속화시켜 국제곡물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세계는 싸고 안전한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곡물 등 1차 산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 Clean Energy Competition (청정에너지 개발 경쟁)

2009년 12월 코펜하겐 회의를 계기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우선, 청정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정에너지 경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선언했고,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과 일본, 한국 등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확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2007년 773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2,545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탄소배출권 시장은 2010년에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 개요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해외 정치·사회, 경제, 산업·경영 분야의 새로운 양상을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2010년 각 부문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함
- 2010년 해외 정치·사회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는 Smart Government(효율적 정부로의 복귀), Nuclear Diplomacy (핵 외교전 가열)를 선정함
- 경제 부문에서는 New Global Economy (신 세계경제 질서의 확립), BICIs (새로운 신흥강국 대두), Africa Rush (아프리카 진출 가속), 'Madagascar' Conflict (국가간 자원분쟁 확산)이라는 4가지 트렌드를 뽑음
- 산업·경영 부문에서는 New Cosmopolitan (신경제 인재의 부상), Green Productivity (산업의 녹색 생산성 증시), Grain War (곡물확보 전쟁 가열), Clean Energy Competition (청정에너지 개발 경쟁)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2010 글로벌 10대 트렌드 >

구분	트렌드
정치·사회	- Smart Government(효율적 정부로의 복귀) - Nuclear Diplomacy (핵 외교전 가열)
경제	- New Global Economy (신 세계경제 질서의 확립) - BICIs (새로운 신흥강국 대두) - Africa Rush (아프리카 진출 가속) - 'Madagascar' Conflict (국가간 자원분쟁 확산)
산업·경영	- New Cosmopolitan (신경제 인재의 부상) - Green Productivity (산업의 녹색 생산성 증시) - Grain War (곡물확보 전쟁 가열) - Clean Energy Competition (청정에너지 개발 경쟁)

2. 글로벌 10대 트렌드

1) Smart Government(효율적 정부로의 복귀)

- (의미)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그동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무시되었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효율적인 정부'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 회복 :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9년 -1.1%에서 2010년에는 3.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3.4%에서 2010년 1.3%로 높아지고 신흥시장 및 개도국들은 같은 기간 1.7%에서 5.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 건전성 악화 : 주요국 정부들은 유동성 위기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 등으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직면함
 - 세계 전체 공공 부문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7.9%에서 2008년 60.2%, 2009년 68.1%, 2010년에도 71.7%로 높아질 전망임
 - 세계 GDP에서 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0%에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6.7% 및 5.6%로 크게 상승할 전망임

< 세계 재정수지 / GDP 비중 추이 및 전망 >

(%)

	2005	2006	2007	2008	2009(E)	2010(E)
세계	-1.5	-0.6	-0.5	-2.0	-6.7	-5.6
선진국	-2.4	-1.4	-1.2	-3.5	-8.9	-8.1
신흥시장 및 개도국	-0.1	0.4	0.4	-0.2	-4.0	-2.9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주 : 재정수지(Fiscal Balance)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내용)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거대 정부'를 버리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공공 부문 효율성 제고, 공적 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 주요국 정부들은 경기 부양 목적의 재정 지출 확대 정책과 감세 정책의 중단 등을 통해 재정수지 악화 방지에 주력할 전망

- 재정 지출 축소 : 선진국들은 대규모 공공사업 축소, 국방비 삭감 등을 통해 재정 지출 수준을 축소할 것으로 보이나, 신흥개도국들은 내수 기반이 취약하여 급증한 재정 지출 규모를 줄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감세 정책의 중단 : 주요국들의 소비세 및 소득세에 대한 감세 정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나,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의 포폴리즘화로 감세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함
- 공공 부문 효율성 제고 : 시장 원리의 부각으로 비대해진 정부 규모와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비판 강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여, 예산 절감, 인적 자원의 쇄신 등의 자구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예산 절감 : 주요국 정부들은 국방비의 대규모 삭감, 정부 기관의 경비 절감, 공공 부문 인력 감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임
- 인적 자원의 쇄신 : 정부 내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접목시키고자 성과주의의 강화, 민간에 대한 공직 개방 가속화 등이 전망됨
- 공적 자금 투입 기업들의 매각 : 공적 자금이 투입된 민간 기업의 매각이 본격화되어 글로벌 M&A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 정부들은 민간 기업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대한 재정적 부담을 신속하게 줄이기 위해 매각 작업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이번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겪은 신흥공업국들은 선진국 금융기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인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정부는 경제 위기로 강화된 공공부문의 역할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을 경주
 - 다만 성급한 출구 전략으로 투자 심리 위축, 구조적 실업 등이 지속되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안착하지 못하고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임
 -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에도 오히려 기업의 R&D 투자, 신성장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노력을 지속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할 것임

2) Nuclear Diplomacy (핵 외교전 가열)

- (의미) 2010년에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에는 NPT(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방지조약) 8차 회의 등 다자간 협상과 미소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의 후속협정 등 양자간 협상과 같은 국제적·다각적 노력이 진행될 예정
 - 특히,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 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이를 위한 협력과 노력이 가속화 될 전망
 -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핵확산방지 전략을 위한 비전 제시
- (내용) 핵 없는 세상은 개별 국가들에 대한 핵 확산 방지, 불법적 핵 이전 금지, 핵분열 물질의 관리, 민수용 핵 프로그램과 이중용도 기술 감시, 군축 등이 핵심
 - 개별 국가들에 의한 핵확산 방지 : NPT 위반을 탐색·예방 또는 처벌하기 위해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 원자력 기구)에 필요한 예산과 정보력, 기술 자원의 확충을 지원
 - **NPT 체제 강화**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 검사관들을 위한 자원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NPT를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
 - **CTBT 확산** :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승인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불법적 핵 이전 금지 :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통해 공동 훈련, 정보 공유 등 다자적 노력 강화

- 핵분열 물질의 관리 : 2010년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군축회의에서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등의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새로운 조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
- 민수용 핵 프로그램과 이중용도 기술 감시 : NPT가 국가들의 평화적 핵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핵연료주기활동을 통한 평화로운 확산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IAEA의 감시 능력을 강화
 - 이를 위해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고, 평화적 핵 협력과 국제 핵연료은행을 위한 새로운 체제 구축을 지향한다고 밝힘
- 군축 : 미국과 러시아는 시효가 만료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을 대체할 후속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러한 양국의 노력은 국제적 군축 노력 가속화에 기여
 - 2010년에 러시아와 미국은 자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 핵 탄두의 숫자를 1,000기 이하로 낮출 것을 목표로 하면서 영국·프랑스·중국에도 무기 감축 협상에 대한 압력을 가할 전망
- (시사점) 2010년부터 향후 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면서 핵을 둘러싼 안정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핵 문제도 안정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미국은 이란 및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이란 및 시리아와 미국과의 직간접 대화 추진 및 탈퇴국인 북한 및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NPT 미가입국에 대한 가입 추진 등이 시도될 것으로 기대됨

3) New Global Economy (신 세계경제 질서의 확립)

- (의미) 위기 이후 출구전략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새로운 경제체제 형성, 경제지형변화가 전개될 전망
 - 경기 회복 지속을 위한 출구전략 실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별 전략의 시기 및 특성이 차이로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증대
 - 또한 기존 경제체제의 한계로 G20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 형성, 국가별 및 지역별 경제 지형의 변화도 진행될 전망
- (내용) 새로운 경제 체제 형성, 새로운 세계 경제 성장 모델, 효율적 출구 전략 실행, 국제통화체제 불안정, 신흥시장 수요 제고, 금융개혁, 금융부문 건전성 제고, 경제지형 변화 등이 전망됨
 - 새로운 경제 체제의 형성 가능성 증대 :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G20체제의 형성 및 확대 가능성 증대
 - 기존의 IMF, WTO 체제의 한계성이 드러난 가운데 G7체제의 위기 극복 능력 미미 등은 G20체제의 형성 가능성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 성장 모델의 전환 : 지속가능한 성장위해 ‘새로운 세계 경제 성장 모델’을 모색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
 - 글로벌 리밸런싱(rebalancing) : 글로벌 임밸런스¹⁾에 의존한 성장모델에서 리밸런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 가능성 고조
 - 구체적으로는 중국 등 수출주도 성장국가의 내수 비중 증대와 내수위주의 성장 국가인 미국의 수출 비중 증대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국가의 통화가치 상승 요구 증대 전망
 - 효율적 출구전략의 실시 : 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비전통적인 정책²⁾부터 철회하고, 재정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순으로 축소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
 - 재정정책 :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재정상태 등에 연동하여 재정정책 측면의 출구 전략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정책 : 또한 금융시스템에 과도하게 투입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 인상 등 금융 긴축 정책 실시가 예상됨.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완전한 회복을 확인한 후에 금리를 인상할 것임³⁾

1) 글로벌 임밸런스는 주요국 경제 성과의 현격한 차이를 의미. 이를 무역측면에서 보면 중국 등 신흥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적자를 지속함을 의미.

2) 비전통적인 정책(unorthodox measures)은 정부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은행 부채 보증, 은행 부실 채권 구입, 자동차 및 가전제품 구입 보조금 등 정책을 의미함.

3) 또한 보유 중인 채권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채권가격 하락(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임.

- 국제통화체제 불안 : 환율 변동성 증대 등 국제 통화체제의 불안정성 증가
 -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은 자본유출 불안 등으로 외환보유 규모를 증대시킬 것임. 외환보유고 누적은 해당국의 투자 손실 뿐 아니라 향후 국제 통화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특히,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09년 9월 현재 2조 2,726억 달러로 미국의 2008년 GDP의 15.7%, 세계 GDP의 3.7%를 기록
- 신흥시장수요, 금융부문 개혁 및 건전성 제고 :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다양한 문제점 및 기회 요인에 직면
 - 고용시장 악화, 신흥시장 수요 제고 : 주요 선진국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⁴⁾, 가계소득 감소, 민간소비 저하에 직면. 세계 무역 수요 부진 만회를 위한 신흥시장 개발 필요
 - 금융부문 개혁 : 이번 위기의 주요인 중의 하나인 과도하게 느슨한 금융규제에 대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요구가 증대
 - 금융부문 건전성 제고 기회 : 한편 세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체계 정착의 기회를 맞이함
- 경제 지형 변화 : 지역 및 국가의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변함
 - 국가별로는 중국 등 신흥국의 비중은 증대, 미국 등 선진국의 비중은 감소
 - 지역별로는 ASEAN+3, 신흥개도국, 중동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NAFTA 및 유럽의 비중은 감소세

<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세계 경제 비중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ASEAN+3	21.7	20.3	19.8	19.3	19.1	18.7	18.3	18.2	19.0	20.9	21.1
미국	31.0	32.3	32.1	29.9	28.3	27.8	27.3	25.5	23.7	24.9	24.3
중국	3.7	4.2	4.4	4.4	4.6	4.9	5.4	6.1	7.1	8.3	8.7
NAFTA	35.2	36.6	36.4	34.1	32.4	32.2	31.8	29.9	28.0	28.7	28.3
유럽	19.5	19.9	20.8	22.9	23.3	22.4	21.9	22.3	22.4	21.5	21.0
신흥개도국	20.1	20.4	20.1	20.3	21.4	23.7	25.8	28.0	30.7	30.7	31.9
중동	2.0	2.0	1.9	1.9	2.0	2.3	2.6	2.6	3.1	2.9	3.2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주 : 경제 비중은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對세계 GDP 비중을 의미.

- (시사점) 세계 경제 변화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는 내수주도의 성장모델 전환 필요성, 신흥국시장 확대 등이 필요한 가운데 기업들은 금융개혁 강화로 수익구조 위축을 만회할 대안 마련이 요구됨

4) 미국 실업률은 2009년 9월 9.8%, 10월 10.2%로 상승, 유럽도 8월 9.6%, 9월 9.7%로 상승.

4) BICIs (새로운 신흥강국 대두)

- (의미) 향후 중국은 세계 경제 뿐 아니라 정치·외교 면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새로운 중국(New China)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견실한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BRICs 중 러시아를 대신하여 편입되면서 BICIs가 대두될 전망
 - 건국 60주년을 맞은 중국은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새로운 중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
 - 한편, 최근 BRICs 국가 중 러시아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인구 1억 명 이상 거대 국가 중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함으로써 러시아를 대체하여 BRICs에 편입되면서 BICIs가 신흥거대국으로 대두될 전망
- (New China의 탄생) 세계 경제·정치·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으로써 새로운 중국의 탄생을 꾀할 전망
 - 경제적 영향력 증대 : 향후에도 중국은 경제성장의 가속화, 경제 외교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국의 對 세계 경제적 영향력을 높여나갈 전망
 - 중국은 GDP 규모 면에서는 2008년에는 전 세계의 6.4%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르면 2009년이나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중국은 IMF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연평균 9% 중반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일 전망
 - 중국 정부는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과 조화를 이룬 사회주의 근대화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할 계획6)
 - 한편, 2010년 '상하이만국박람회' 개최,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세계 제1의 외환보유액 활용 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나갈 전망
 - 정치·외교적 위상 제고 : G20에서의 위상은 물론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대미 발언권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북핵문제 등 세계 정치·외교 무대에 있어서도 위상을 높여나갈 것임

5) 골드만삭스(2003)는 'Dreaming with BRICs: the Path to 2050'에서 중국이 2039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6) 이하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참조.

- G2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체제가 부상되면서 기축통화 논쟁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 재편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과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전망
 - 더욱이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경제 뿐 아니라 세계 정치·외교·군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대미 발언권을 강화시켜 나갈 것임
 - 한편, 북핵문제 등 주변 지역 정세 문제에 관해서는 거대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감과 동시에 충돌을 회피함으로써 세계 경제 패권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BICIs 경제의 약진) 인구 1억 명 이상의 거대 국가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도 고성장세를 지속하면서 BICIs 경제의 약진이 두드러질 전망**
- 인구 2억 4,300만 명의 대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0~2014년 연평균 6%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 러시아 대신 신흥 거대 개도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
 - 인도네시아의 경우,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정치·경제의 안정화를 달성
 -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향후에도 튼튼한 내수 기반과 낮은 대외 의존도를 기반으로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킴과 동시에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한편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인도와 더불어 브라질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BRICs가 BICIs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
 - 인도 경제는 2008년에는 7.3%의 고성장을 달성했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률이 5.4%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2010~2014년까지 연평균 7%대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브라질은 2009년 경제성장률이 -0.7%로 2008년 5.1%에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0~2014년 연평균 3% 중반 이상의 안정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시사점) BICIs의 부상은 한국 경제에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이라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들의 부상으로 수출 시장 경쟁 심화,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입지 약화 등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5) Africa Rush (아프리카 진출 가속)

- (의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계기로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경제 협력 증진 노력이 증대될 것임
 -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19차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 대회임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를 비롯한 9개 도시에서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
 - 이에 따라 세계 마지막 미개발 지역인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는 빠르게 커질 것임
 - IMF에 따르면, 아프리카7) 지역의 GDP는 2004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1%에서, 2009년 1.67%, 2014년 1.83%로 증가할 전망이다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GDP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p)	2010년 (p)	2014년 (p)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DP(십억달러)	550.6	646.2	747.6	860.4	993.0	919.7	1,008.4	1,366
세계 GDP 중 사하라이남아프 리카 비중(%)	1.31	1.42	1.52	1.56	1.63	1.61	1.67	1.83

자료 : IMF.

- (내용) 아프리카는 2010년에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FDI 및 ODA 지원이 증가하고 세계 각국들의 자원 확보를 위한 경제 협력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아프리카 전체 GDP는 2010년에도 2009년에 비해 크게 성장할 것임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2009년 1.1%에서 2010년에는 4.1%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투자는 2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7) 아프리카는 경제적으로 북부아프리카와 사하라이남아프리카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주요 저개발지역인 사하라 이남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함.

- 특히 최근 글로벌 수요가 증대함으로써 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아프리카의 빠른 성장에 기여할 것임
- 금은 2004년 대비 2008년 평균 2배 이상 값이 올랐고 니켈, 구리 등도 같은 기간 2~3 배 이상 가격 상승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프리카 성장률 및 투자비율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GDP 성장률	7.2	6.2	6.4	6.9	5.5	1.1	4.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총투자 (GDP대비)	19.9	19.9	21.2	22	22.2	22.4	22.7

자료 : IMF.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의 FDI와 ODA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 확보 및 경제 협력을 위한 투자 경쟁이 가속화될 것임
 -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액은 2004년 172억 달러에서 2008년 662억 달러로 크게 증가
 - OECD에 따르면,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는 2004년 260억 달러에서 2008년 390억 달러로 증가
 -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별 지원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미국 65억 달러, 영국 25억 달러, 프랑스 24억 달러, 독일 21억 달러, 네덜란드 13억 달러, 일본 11억 달러를 기록
 - 중국은 2009년 11월 제 4차 중-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2010년부터 3년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할 것으로 발표하며 경제 협력에 적극적
- (시사점) 아프리카 붐으로 아프리카의 전력, 건설 등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고 소득 증대로 인해 거대한 내수시장이 열리게 되어 세계 각국의 아프리카 수출 및 내수 공략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아프리카의 산업화가 진전되면 전력, 건설 및 플랜트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진출 경쟁이 가열될 것임
 - 아프리카의 발전으로 인해 내수 여력이 증대된다면, 컴퓨터, 휴대폰 등 국내 수출 주력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6) 'Madagascar' Conflict (국가간 자원분쟁 확산)

- (현상) 마다가스카르 모델로 대표되는 소규모 국지적 자원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대우로지스틱스는 식량 재배를 위해 마다가스카르 정부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섬의 경작지 절반을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나 식량난을 우려한 반대세력이 폭동을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킨 후 계약을 무효화시킴
 - 마다가스카르 사태는 전면적인 총력전 형태의 자원분쟁이 아닌 국지적인 소규모 자원분쟁의 대표적 사례로서 식량, 토지, 담수, 원유, 가스 등의 소유권을 두고 국지적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세계 주요 자원 분쟁지역 >

지역	자원	분쟁국가	분쟁 내용
북극해	석유, 가스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지구 석유·가스 매장량의 25%를 보유,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
동중국해	가스	중국, 일본	1970년 이후 천연가스 매장지임이 확인되면서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이 가열됨
베네수엘라 오리노코강 유역	석유	베네수엘라와 엑손모바일, 셰브론, BP, 토탈	석유산업 국유화 정책을 추진 중인 차베스 정권과 석유 기업들 간의 분쟁이 진행 중
호르무즈 해협 아부무사 섬	전략적 요충지	이란,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매일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를 두고 이란과 UAE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
서부아프리카 기니만	석유	앙골라, 카메룬, 콩고, 가봉, 적도기니, 나이지리아 등	2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 자원의 보고를 두고 기니만 연안 국가들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

자료 : Foreign Policy, 2008.08.

- (전망) 석유, 원자재, 식량에 대한 초과 수요와 자원 민족주의가 지속되면서 자원 분쟁의 빈도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국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원유에서 출발한 자원 민족주의가 원자재, 곡물로 확산되면서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는 자원 분배시스템은 붕괴되고 자원 분쟁의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출현하는 新 자원민족주의는 과거처럼 공급을 축소함으로써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 수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중국 등은 해외 유전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도모하고 있음
 - 미국은 70년대 이후 에너지 부족국가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국가 주도 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해외 유전 개발에 적극 참여
 - 중국은 1993년 이후 에너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자원 부족들을 상대로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
- (시사점) 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는 자원 수급처의 다변화와 자원 외교의 강화를 시도하고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설비 개선과 R&D 투자를 확대해야 함
 -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 해외 플랜테이션 개발, 자원외교의 강화를 통해 국지적인 자원 분쟁이 에너지와 식량 등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기업은 설비개선과 R&D 투자를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압력을 줄이는 시도가 필요함

7) New Cosmopolitan (신경제 인재의 부상)

- (의미) 경제 위기 이후 고령화, 녹색화, 다극화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경제가 대두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재들이 각광을 받게 됨
 - 2010년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본 궤도에 오르며 글로벌 기업들은 단기 '생존' 전략에서 장기 '성장' 전략으로 수정하면서 新인재상으로 창의적 글로벌 인재인 "New Cosmopolitan⁸⁾"을 요구
 - 이에 따라 창조적인 글로벌 신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석유자원 고갈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녹색일자리(Green Job)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내용) 글로벌 기업들은 경제 위기에서 신성장 동력 개척 등을 통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세계 경제 질서는 다극 체제로의 이행하는 환경 속에서 뉴코스모폴리탄적 인재의 수요가 증가함
 - 신경제로의 진입 :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은 부실 부문을 매각하는 다운사이징(down-sizing)보다는 사업의 재구조화에 나서 신성장 동력 발굴, 신 시장의 개척, 다각화를 목표로 할 것임
 - 미국발 금융 위기에 대한 반발로 새로운 국제 표준을 둘러싼 지역간·국가간 신표준 선점 경쟁이 활발해 질 것임
 - 신직종에 대한 수요 증가 : 녹색화·웰빙·고령화·지식기반의 경제환경 속에서 뉴코스모폴리탄적 감성을 지닌 녹색일자리, 실버인력, 녹색헬스케어, 정보시스템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녹색 혁명, 성장보다 웰빙 추구, 저출산·고령화 진전,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 가속이라는 환경의 변화로 녹색일자리, 실버산업, 헬스케어산업, 정보시스템관리산업에서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8) 코스모폴리탄은 일반적으로 영어는 물론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알며, 해외 유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를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음.

- **녹색일자리** : 에너지원 및 에너지 高효율화, 산업·공간의 녹색화, 환경보호·자원순환, 저탄소 경제활동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실버시터** :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돌보는 실버심리상담사, 실버건강관리사, 실버여가활동관리사 등의 신직종이 성행할 것임
 - **헬스케어 전문가** :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녹색소비 생활의 보편화에 따른 녹색 소비 감시자 등 녹색관련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보시스템관리자** : 지식기반사회에서 데이터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물론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국제공인 정보시스템감시자, 정보관리기술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신인재상에 대한 요구 증가** : 다극 체제로 세계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국제표준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뉴 코스모폴리탄적 인재상이 요구될 것임
- **뉴 코스모폴리탄** : 다극 체제로 세계 경제 질서가 이행되면서 다문화·다민족 시대의 촉진되는 환경 하에서 코스모폴리탄을 구현하며 전문성을 발휘하는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의 가속화와 기술 진보로 인해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타문화권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됨
 - 美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CEA)는 '2016년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근로자 준비 자세'라는 보고서에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함
 - 융·복합 국제 콘퍼런스에서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 박사는 기업들이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하며, 새로운 인재상으로 창의성과 감성을 강조함
- (시사점) 새로운 국제 표준에 선점할 수 있는 핵심 인재인 녹색전문 인력, 다문화 교육전문 인력, 실버산업 컨설턴트 등의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

8) Green Productivity (산업의 녹색 생산성 중시)

- (의미) 모든 산업에서 환경 친화적 녹색기술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됨과 동시에 환경 친화성이 생산의 성과를 판별하는 기준에 포함되기 시작
 - 녹색기술의 보편화 :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녹색기술의 적용 노력이 일반제조업을 넘어서 농업과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확대
 - 환경 친화성이 생산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에 반영 : 환경에 어느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가치로 평가하여 전체생산에서 차감한 '녹색생산'이 도입되면서 '녹색생산성'이 전통적인 생산성 개념을 대체하기 시작
- (내용) '녹색 생산성'의 일반화, 농업의 환경 친화성 강화하려는 노력 전개, 녹색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녹색 서비스 산업의 등장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
 - 전 산업에서 새로운 생산성 개념 도입 : '에너지 흔적 (energy footprint)', '탄소흔적 (carbon footprint)' 등이 생산성 평가에 반영되어 '녹색 생산성' 등장
 - 에너지 흔적 : 생산 활동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연 또는 토지의 양을 의미
 - 탄소 흔적 : 조직, 활동 또는 생산물이 야기하는 전체적인 온실가스의 양으로 대개는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측정되며 '전체 생명주기 평가(Life Cycle Assesment, LSA)'의 한 부분을 구성
 - 형식 : 생산성 측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산출 대(對) 투입'의 개념에 에너지 또는 탄소 흔적을 빼는 형태
 - 녹색이 강화되는 농업 : 그동안 농업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기여해 온 질소투입을 줄이면서도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작물개발이 추진
 - 낭비되고 있는 질소비료 : 매년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는 약 1천 억 달러 어치의 질소비료 중 약 2/3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잔류질소가 야기하는 온실효과 : 경작지로부터 흘러나가는 질소비료는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질소비료는 이산화탄소보다 300배나 더 온실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이산화질소가스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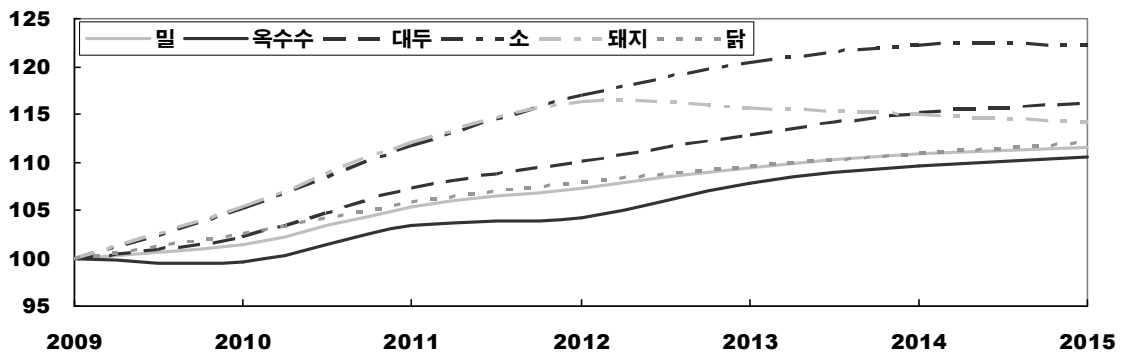
- 방식 :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같은 양의 질소비료를 투입하더라도 더 많이 또는 같은 산출을 더 적은 양의 질소비료 투입으로 성취할 수 있게 함
- 녹색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에 대한 투자 확대, 대체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개발 지원 확대 등으로 구체화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이들 기술 간의 환경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시작
 - 신 재생에너지의 상용화 박차 : 2010년 말까지 중국의 풍력발전 능력이 20기가 와트(현재 스페인 수준)에 이르고 2020년까지는 이의 5배인 100기가 와트의 전기가 풍력으로 생산 공급될 예정
 - 대체에너지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원 지속 : 2010년 미국 연방정부예산 가운데 31억 달러가 청정에너지기술 개발과 연구를 위해 책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에탄올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화
 - 논쟁 : 녹색 에너지 산업 내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바이오 연료의 환경효율성에 대한 논란에서처럼 진정으로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지에 대한 비교가 본격화
- 녹색 서비스 산업의 성장 : 다른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산업화하면서 녹색서비스 인프라 구축, 녹색 컨설팅, 녹색금융상품 등으로 구체화
 - 녹색 서비스 인프라 : 탄소배출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제환경규제정책 전문가육성 및 관련 전문자격제도 수립
 - 녹색 컨설팅 : 녹색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녹색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보급
 - 녹색 금융상품 : 친환경적이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있어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확대 보급
- (시사점) 환경 친화성을 과다하게 강조하는 것을 경계하는 노력이 전체 산업의 녹색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전체 산업의 녹색화는 기후변화를 방지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함
 - 그러나 과도한 녹색화는 자원분배의 왜곡과 역효과를 결과할 수 있음
 - 최근 전국적으로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9) Grain War (곡물확보 전쟁 가열9)

- (의미) 곡물, 육류 등 식량의 국제 가격 상승에 더해 식량 무기화를 포함한 자원 민족주의가 대두되면서 식량 자원의 생산,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
- 식량 자원 가격의 상승 : 2010년은 밀, 대두 등 곡물은 물론 육류의 가격 상승까지 예상되며 향후 3~5년간 식량 자원의 가격 상승은 지속될 전망이다
- 식량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 :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식량 수출국 물론 중국과 같은 식량 소비 대국까지 식량의 수출 제한 움직임을 보임

< 국제 식량 자원 가격 전망 >

(2009년 가격=100)



자료 : FAP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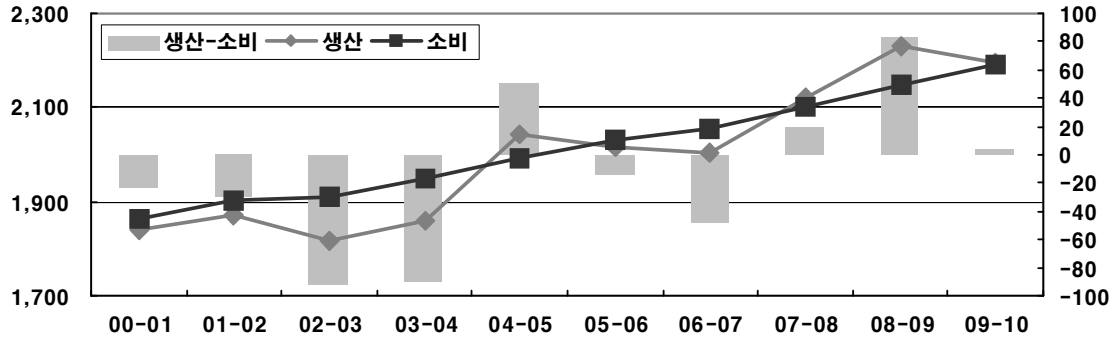
주 : 밀은 Canadian Wheat Board, 옥수수는 FOB U.S. Gulf, 대두는 CIF Rotterdam 가격 기준, 육류는 U.S. Retail 가격 기준임.

- (내용) 세계 곡물 수요의 증가와 생산량 감소, 바이오 에너지 수요의 증가, 식량 자원에 대한 투기 자금 재유입이 겹쳐 식량의 국제 가격이 상승
- 식량 자원의 초과 수요 : 2009~10년의 세계 곡물 소비량은 예년과 다름없이 증가하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2010년 이후 초과 수요 재발이 예상됨
 - 2000년 이후 감소 없이 매년 증가하는 곡물 소비는 2009~10년 2.0% 증가하나 생산은 1.6% 감소하여 2010년 하반기에는 3년만의 곡물 초과 수요 전망
 - 유엔인구기금의 '1999년 세계인구 현황 보고'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매년 7,700만 명씩 증가하여 2050년에는 90억 명에 이를 전망

9) UN의 경제 활동별 산업 분류 기준(ISIC Rev.4)의 A항(농림수산업)에 해당하며, 본 보고서는 특히 농산물 중 식량 문제에 집중하였음.

< 국제 곡물 생산, 소비 추이 및 전망 >

(2009년 가격=100)



자료 : USDA.

주 : 08-09년은 추정, 09-10년은 10월 기준 전망치임.

- **바이오 에너지 수요의 증가** : 2009년 바이오 에탄올의 수요는 12억 갤런으로 추정되며, 2013년에는 현재보다 2배 증가, 2016년에는 3배로 증가할 전망이다¹⁰⁾
 - 2015년까지 바이오 에탄올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미국 7.8%, EU 10.3%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이오 연료 수요의 증가가 예상
- **식량 자원에 대한 투기 자금의 유입** : 2009년 하반기 이후 식량 자원 선물 시장에 대한 자금 재유입으로 2010년 식량 자원 현물 가격의 상승이 예상됨
 - 최근 2년간 거래량 증가가 가장 컸던 2008년 상반기 이후 밀, 옥수수, 대두의 현물 가격은 전년 대비 24~89% 상승한 바 있음¹¹⁾
 - 2009년 9월 기준 식량 자원의 선물 거래액은 390억 달러, 거래량은 14만 건으로 전년 9월 수준을 회복하면서 현물 가격의 재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시사점) 농산물 및 식량 안보 위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내 농업 기술의 향상과 해외 투자 등 다각적인 식량 자원 확보가 필요**
 - 국내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등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와 함께 해외 플랜테이션 농장 운영과 같은 안정적인 해외 식량 확보 정책이 요구됨
 - 단기적으로는 국제 가격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장기적으로는 자원 민족주의의 대처를 위해 관련 파생 상품 전문가 육성과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

10) 자료: FAPRI.

11) 2006~2007년 평균 가격 대비 2007~2008년 평균 가격 상승률, 밀(Canadian Wheat Board), 옥수수(FOB U.S. Gulf), 대두(CIF Rotterdam) 가격 기준, 자료: CFTC.

10) Clean Energy Competition (청정에너지 개발 경쟁)

- (현상) 2009년12월 코펜하겐 회의를 계기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 등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코펜하겐 회의를 계기로 2010년 이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육성 등으로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경쟁이 본격화될 것임
- (내용) 청정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적 노력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도 크게 확대될 전망
 -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정에너지 경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세계 각국이 청정에너지 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함
 -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20년 30%에서 50%에 이르며, 미국, 일본, 한국의 경우 2030년 1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및 보급 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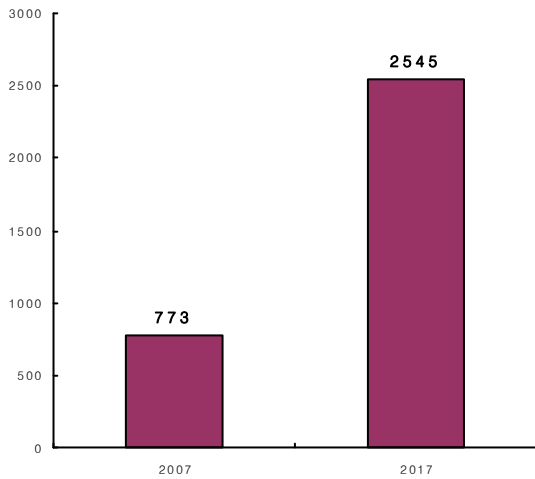
국 가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영국	한국
보급률	4.8%	3.0%	6.9%	15.8%	2.1%	2.4%
보급목표	10.9%(‘30)	11.1%(‘30)	18%(‘20)	30%(‘20)	15%(‘20)	11%(‘30)

자료 : Energy Balance of OECD Countries('08), 지식경제부('08).

주 : 보급률은 2007년 기준, 보급목표는 2030년 또는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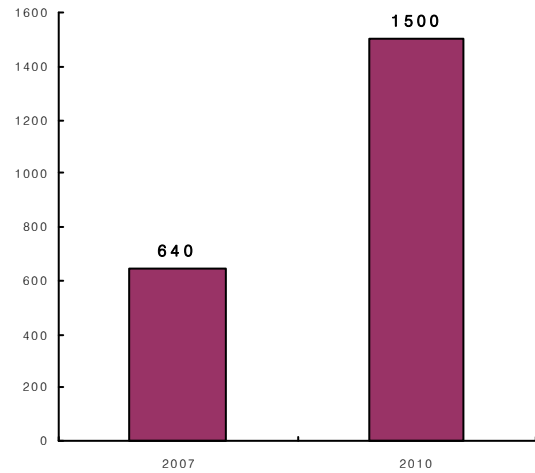
- 청정에너지 관련 시장 확대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2007년 773억 달러에서 2017년 2,545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탄소배출권 시장도 '07년 640억 달러에서 '10년 1,500억 달러로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02년 220억불 수준에서 '08년 1,550억불 수준으로 6년만에 7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됨

<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 >



< 탄소배출권 시장 전망 >

(단위: 억 달러)



자료 : UNEP (녹색성장위(2009)에서 재인용).

<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추이 >

(단위 : 10억 불)

	'02	'03	'04	'05	'06	'07	'08
재무적 투자	7	11	16	36	66	112	119
연구개발 투자	15	16	19	24	27	36	37
합 계	22	27	35	60	93	148	155

자료 : New Energy Finance, 'Global Trends in Sustainable Energy Investment 2009'.

주 : 연구개발 투자에는 기업과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물론 개인들의 소규모 투자까지 포함.

- 청정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대체 : 청정에너지 경쟁으로 인해 화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의 發電單價가 같아지는 Grid Parity(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하는 시점이 당초 2030년경에서 2015년경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¹²⁾

- (시사점) 청정에너지 시장의 확대는 우리 제조업체가 매출을 확대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위협 요인이 될 것임

12)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하는 시점은 국가별로 에너지별로 다르겠지만, 독일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15년경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8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3/4	
미국	2.1	0.4	-0.7	1.5	-2.7	-5.4	-6.4	-0.7	2.8	-2.7
EU	2.7	0.7	0.7	-0.3	-0.4	-1.9	-2.4	-0.2	0.4	-4.2
일본	2.4	-0.7	5.6	-8.1	-4.0	-10.2	-11.9	2.7	1.3	-5.4
중국	13.0	9.0	10.6	10.1	9.0	6.8	6.1	7.9	8.9	8.5
한국	5.1	2.2	5.5	4.3	3.1	-3.4	-4.2	-2.2	0.9	0.2

주 1) : 2008, 2009년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10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 17일	12월 24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2.66	3.54	3.30	3.48	3.75	0.27%p
	엔/달러	90.80	98.98	96.33	89.91	89.78	91.63	1.85¥
	달러/유로	1.3992	1.3244	1.4039	1.4646	1.4331	1.4333	0.0002\$
	다우존스지수	8,776	7,609	8,447	9,712	10,308	10,466	158p
	닛케이지수	8,860	8,110	9,958	10,133	10,164	10,378	21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3.94	4.16	4.39	4.24	4.32	0.08%p
	원/달러	1,259.5	1,383.5	1,273.9	1,178.1	1,177.9	1,175.0	-2.9원
	코스피지수	1,124.5	1,206.3	1,390.1	1,673.1	1,647.8	1,682.3	34.5p

주 : 12월 24일 해외 지표는 전일(12월 23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 17일	12월 24일	
국제 유가	WTI	44.61	49.65	69.08	70.28	72.68	72.25	-0.43\$
	Dubai	36.45	46.80	71.85	65.33	73.26	72.91	-0.35\$
CRB선물지수		229.54	220.40	249.96	259.39	276.13	279.36	3.2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HRI 주요 경제 지표 추이 전망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P)	2009(E)	2010(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4.6	4.0	5.2	5.1	2.2	0.2	4.5	
	최종소비지출 (%)	1.0	4.6	5.1	5.1	1.6	1.3	3.5	
	민간소비 (%)	0.3	4.6	4.7	5.1	0.9	0.1	3.3	
	총고정자본형성 (%)	2.1	1.9	3.4	4.2	-1.7	-2.6	4.9	
	건설투자 (%)	1.3	-0.4	0.5	1.4	-2.1	2.6	3.2	
	설비투자 (%)	3.8	5.3	8.2	9.3	-2.0	-9.1	9.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282	150	54	59	-64.1	421.0	18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294	232	161	146	-132.7	425.7	261.6
		수출 (억 \$)	2,538	2,844	3,255	3,715	4,220.1	3646.4	4,120.4
		증가율 (%)	(31.0)	(12.0)	(14.4)	(14.1)	(13.6)	(-13.6)	(12.9)
		수입 (억 \$)	2,245	2,612	3,094	3,568	4,352.7	3220.7	3,855.2
		증가율 (%)	(25.5)	(16.4)	(18.4)	(15.3)	(22.0)	(-26.0)	(19.7)
소비자물가 (평균, %)	3.6	2.8	2.2	2.5	4.7	2.8	3.1		
실업률 (평균, %)	3.7	3.7	3.5	3.2	3.0	3.6	3.4		
국제유가(평균, Dubai, 달러)	33.6	49.4	61.6	68.4	94.3	62	85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45	1,024	956	929	1,103.4	1280	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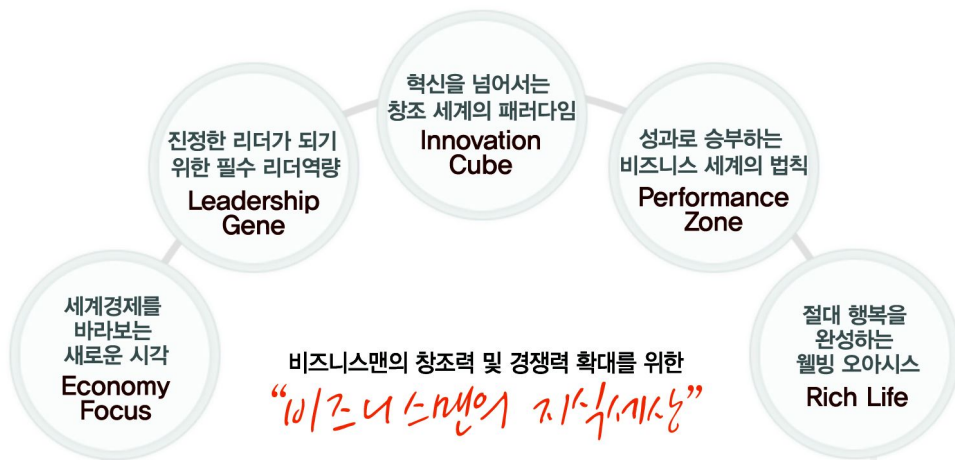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外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外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外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눈에 보는 weekly webzine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신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

